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제시로 이전

군산·익산·정읍·김제·고창·부안... 서부권역 6개 시·군 노인학대예방·인권보호사업 추진



전북도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천오)'이 군산에서 김제시로 이전, 16일 이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북 서부권역 6개 시·군(군산, 익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에서 발생하

는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전화 24시간 운영(1577-1389),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상담과 지원, 노인학대에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인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법인 변경과 소재지를 김제시로 이전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김제시에서의 첫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으로 강령서 도 복지여성보건의국장, 박준배 김제시장, 이원택 국회의원, 김영자 김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 노인복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강령서 도 복지여성보건의국장은 "노인학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노인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자와 가족 지원, 예방교육과 인식개선까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노인학대 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삶의 질 개선 위한 '나무 심기' 시작

도, 1883ha에 192억원 투입·경제수 등 429만 그루 식재
미세먼지저감 조림·산불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등

전북도가 192억 원을 투입, 1,883ha에 총 429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과 탄소흡수원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목적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활권 및 산업단지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침·활 다층 혼효림 등 미세먼지저감 숲 180ha를 조성한다.

또 주요 관광지나 도로변 등에 나무공익조림 180ha를 조성해 아름다운 경관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사태나 산불·병충해 및 태풍 피해지 등 재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림재해방기조림 150ha 지역산림의 특성을 부각해 대표적인 숲으로 육성하는 지역특화조림 110ha도 조성한다. /유호상 기자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목재자원 공급을 위한 경제수 조림 1,180ha 산림에서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두릅·꽃나무 등 특용자원 조림 90ha 대형산불 확산 방지 및 산불 발생 시 사할·주택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한 내화수림대 33ha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본격적인 나무심기에 앞서, 우량 묘목수급준비와 올바른 나무심기 추진방향을 등을 전파하고, 이달 초부터 4월까지 봄철 조림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도 환경녹지국장은 "나무심기를 통해 미래의 복제자원 확보와 기후변화 대처, 탄소흡수원 확대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전호성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는 1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노동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급식,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47개 직종, 약 7,800명이다. 방과후교사와 예술강사 등 시간제 강사까지 포함하면 1만2,000명이 넘는다. 정규직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약 2만4천여 명이므로,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 대략 1/3이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러면서 전 후보는 “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복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용도 불안정해서



해마다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섯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노동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해 교원 공무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노동정책을 같은 철학과 원칙을 갖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했다. 현재 교원 관련 노무는 교육공 교원인사과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에 대한 노무는 행정국 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

전호성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노동정책 총괄 부서 신설로 소통 강화”

다 보니 노동 현안에 대한 통일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노동정책 총괄 부서를 노동현안의 단일 소통창구로 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관료적, 행정적 접근이 아닌 정무적, 정책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두번째로는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복무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명절휴가비, 급식비,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복리후생수당을 공무원과 동일 수준으로 지급하며, 휴가, 휴일 등에 대해 공무원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도록 전주시도교육청 집단교섭에서 전북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세번째로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돌봄 100% 책임운영제를 실시하기 위해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행정업무시간까지 포함해서 최소 6시간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상시 집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돌봄교실 확대가 교사의 업무 가중으

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원의 돌봄업무는 배제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네번째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시간이나 근무일 수를 비용 대비 효율성으로 산정하지 않고 생계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차원으로 접근해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은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대부분 노동자가 된다.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7명 이상은 노동자다. 그들의 가족까지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학생이 노동자로, 또는 노동자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에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알려줘야 하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협력기구 설치 공동 공약으로”

황호진 교육감 예비후보, 도지사 시장·군수 출마 후보들에 제안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6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시장·군수로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공동 공약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황호진 예비후보가 제안한 공동 공약은 (가칭)전북교육협력센터 설치로, 도교육청과 전북도 교육지원청과 시군 간의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교육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황 예비후보는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유·초·중등교육 대부분 업무가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에서 각각 고위급 및 실무 협력관을 파견하고 독립적인 예산 운용과 자체 실행단위까지 갖춘 상시적인 협력기구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돌봄, 방과후학교, 학교폭력, 청



소년 상담, 학교급식, 교육복지 등의 다양한 업무를 (가칭)전북교육협력센터에서 통합·조정하는 것으로, 그는 광역단위부터 기초단체까지 단계적으

로 도입하고자 했다.

그는 “돌봄 문제만 보더라도 광역시·도 17곳 중 전남과 전북만 광역돌봄협의체가 구성돼 있지 않다”며 “돌봄 기관 간 수급방안과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 촘촘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작은학교 문제 해결에서도 교육협력기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초중 또는 중등 통합 학교 설립, 생활 SOC 학교복합시설 도입, 공공인대주택과 일자리를 연계한 주거플랫폼 사업, 폐교활용 기숙형 생태전환학교 설립 등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논의되고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문화예술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학교와 연계하고 통합운영 하는데도 (가칭)전북교육협력센터가 중심에

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선택과목이나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화 교육과정 개발과 마을교육활동가와 마을교사 양성 등을 통해 마을 지역주민, 학부모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우자는 전북으로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

황호진 예비후보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그리고 마을이 함께 교육자원을 연계하고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약화하고, 당선 되면 반드시 제도화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오는 6월 전북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황호진 예비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정책과장 주OED 대한민대표부 교육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현장형 교육전문가로, 국가교육정책 개발과 다양한 교육현장 경험을 갖춘 미래교육 시대의 준비된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정은성 기자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선정·추진

도내 16개 단체 공모사업 신청·심의결과... 9개 단체 사업 선정

전북도는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9개 사업을 선정했고, 해당 단체에 총 3천 4백만 원을 지원 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과 인식개선 및 노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공모한 이번 사업에 총 16개 단체에서 공모를 신청했다.

이어,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심의한 결과, 최종 9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신청한 힐링체조교실을 비롯해 우물감 감소를 위한 시니어 미술활동, 건강한 요가 스트레칭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

모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시작 전 각 프로그램별 방역관리를 지정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도 노인복지인교장은 “급격히 변모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 공예활동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김성중 전 익산시장, 시장 불출마 선언

정현울 시장 지지의사 표명

익산시장 출마예정자였던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현울 시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김 전 시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민들의 성원과 지지에도 10년 만에 어렵게 만든 정권을 지켜 내지 못해 죄송하며 너무 아쉬운 패배였기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더 불어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직책을 가진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깊이 반성하며 일말의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이번 익산시

장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안정적인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정현울 시장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익산은 중소지방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창조적인 도시로 더욱 발돋움을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이제는 일개 개인으로 돌아가 익산이 보다 더 좋은 도시가 되게 노력하니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성중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4050상설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북도당 부당선대추진대책 위원장을 맡아왔다. /익산=이득훈 기자

문택규·박재만 군산시장 출마예정자 ‘단일화 한다’

“이대로 가면 안된다”... 민주당 경선에 앞서 여론조사 통해

6월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산시장 출마예정자인 문택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과 박재만 전 전북도의회이 민주당 경선에 앞서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기로 했다.

아들은 1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군산의 색을 찾기 위해 단일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청렴한 군산, 살기 좋은 군산’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회견문을 통해 지난 4년간 검찰의 압수수색, 새만금 육상태양광 제갈슬래그 환경오염 시민발견(주) 태양광 펀드 중단 및 운영비 논란 등 수많은 의혹들을 마스크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또 군산시 내부청렴도는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군산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공직자들의 사기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전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4년 전인 2018년 군산시 인구는 약 27만3000명에서 현재 26만4000명으로 9000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단일화 명분으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시민들의 위기의식 여론을 수렴해 내려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정치와 인물이 군산시의 위대한 전환을 위해 시민들과 손잡고 나설 시간이다. 군산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일화 방법으로는 여론조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무주 사과, ‘발작물 공동경영체’ 평가 과수 전국 1위

조직화능기수 및 품목 취급액 증가에 높은평가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종합평가 결과 무주농협(사과)이 1위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20~2021년(2년) 사업을 시행한 전국 18개소의 공동경영체 중 우수경영체로 선정됐으며, 과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태풍·호우·냉해 피해 및 고령화로 인한 농가수 감소 등

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무주농협의 2021년 조직화 능기수는 2019년 대비 약 27% 증가하고, 사과 총 취급액은 약 20% 증가했다.

이같은 높은 성장률이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발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해당 지역의 품목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무주농협은 사과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받아 농가를 조직화하고, 경영체 경쟁력을 강화했다.

역량 강화 분야는 농가에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해 사과의 품질 표준화를 도모하고, 출하 시기를 배분했다.

생산비 절감 분야에는 공동 농작업 대응을 위한 지게차 및 전동차위를 구입해 생산비를 절감했다.

품질 향상 분야에서는 비파괴당도 선별기 도입 및 노후화된 APC 보안을 통해 균일한 상품성을 확보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결과는 공동경영체의 조직화뿐만 아니라, 생산 및 유통 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였다”며 “앞으로도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경쟁력 있는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제갈받는 농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